

야외는 마스크, 실내는 '노마스크' 취식

오늘부터 실내시설 음식물 섭취 허용 실외마스크 지침은 유지...방역 '혼선'

25일부터 영화관·대중교통 등 실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이 허용됐지만, 실외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은 유지돼 엇갈린 방역 메시지를 주고 있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오늘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기차,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를 허가했다.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밀집도가 높고 입석이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다는 이유로 실내 취식 금지 유지했다.

대형마트, 백화점에는 안전한 시식

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코너 간 3m, 사람 간은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영화관이나 실내 스포츠경기장은 상영이나 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해야 한다.

방역 당국이 환기와 거리두기를 당부했지만 기차, 영화관 등 밀폐된 공간에서도 취식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실내 노마스크'가 시작되는 셈이다.

그러나 실외마스크는 여전히 의무화 돼 있어, 통풍이 되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영화관에서는 자유롭게 팝콘을 먹는 '엇박자' 방역 정책이

됐다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당국이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는 5월 실외마스크가 해제돼도 상당 기간은 착용이 권고될 것"이라며 "실내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건물 안에서는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을 먹다 밖에 나갈 때 끼는 건 완전 아이러니"라며 "실외보다 실내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정부가 실제 방역은 소홀히 하고 보이는 모습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차기 정부가 '실외 노마스크'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18일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풀려야 할 규

제가 유지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마스크 해제는 성급하다는 입장을 내다가 방역 당국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실외부터 해제하고 실내 섭취를 허용해야 순서가 맞지 않냐"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가들은 실외마스크는 해제하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실외에선 쓰고 실내에선 벗을 수 있는 우리와는 정반대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달 말께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 발표 후 적용은 5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동물실험 안됩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24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세계 실험동물의 날 맞이 '고통등급' 동물실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국 오고싶다" 유승준 비자 재소송, 이번주 1심

비자 발급 재소송 오는 28일 선고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씨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재소송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올 예정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는 28일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1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당시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던 중 병역기피 파문에 휩싸였다. 유씨는 그해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

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고,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2월 유씨를 입국금지했고, 이후 유씨는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유씨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변론 기일에서 "법무부 내부 조치만으로(국내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무부가 입국 금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증(비자) 발급 거부 자

제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유씨가 이번 사건을 고집하는 이유는 취업 목적"이라며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유씨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2020년 3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영사관이 유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 전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 측의 증거 제출을 위한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1심 판단을 선고할 예정이다.

오유나기자

아파트 주차장서 고가 차량 26대 부쉼...경찰 조사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대가 넘는 고가의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

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경 아파트 지하 5층 주차장을 돌며 장도리로 외제차 등 고가 승용차 26대를 부순 혐

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와 피해 차주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슬비기자



'자재값 폭등 섰다운' 호남·제주철콘연합회 원청사 점점 찾나

호남·제주 지역 골조 전문 공사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공사 중단(섰다운)을 결의한 가운데 원청건설사와의 협력이 본격화된다.

24일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 소속 회원사 52곳은 지난 20일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요구하며 섰다운을 결의했다.

그러나 회원사 6곳이 각 사업장 별로 계약을 맺은 원청건설사와 대금 조정 협의의 절차에 돌입하면서 연합회는 공사 중단을 잠정 보류, 물밑 협의의 준비에 나섰다. 우려를 낳았던 호남·제주 지역 건설 현장 공사 중단은 만 하루에 그쳤다.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지난 22일 모든 회원사가 전국 현장 각지에서 하도급 거래 중인 원청건설사에 대금 조정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토록 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조의 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원청 건설사는 열흘 안에 개별 골조 공사업체와 대금 조정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 연합회 회원사와 각 원청건설사 사이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가 차례로 시작된다. 다만 계약 시기에 따라 건설 현장마다 거래 단가에 차이가 있는 만큼, 협의 타결 시점 역시 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 원자재 가격 변동 폭을 산출하는 방식 등을 놓고 협의 과정에 진통이 있을 수도 있다.

호남·제주 철콘연합회 관계자는 "재료비와 인건비 인상폭이 평년 수준이라면 고통을 감당할 수 있지만 35년 만에 자재값이 최대치로 폭등했다. 때문에 계약 체결 전 단계로는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원·하청 간 상생과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을 위해선 하루 빨리 하도급 대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철콘연합회가 조사한 자체비 인상 폭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3~8월 계약분) 철물, 각재·합판 가격은 50%씩 상승했다. 또 기타 자재도 40%가량 올랐다는 추산이다.

철근 원료가 되는 국제 고철 가격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t당 60만 원 선을 넘어섰다. 인건비 인상률도 형틀 재래식 15%, 알폼 시공 30%, 철근 시공 10% 등으로 일제히 올랐다.

서선욱기자



담양경찰, 치안성과관리 전략보고 회의 개최

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는 경찰서 4층 대충마루에서 각 실·과장, 계·팀장, 파출소장 등 성과담당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2년도 상반기 치안종합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보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보성경찰, '안전한 보성만들기' 위한 보성향교 어른신 특강

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지난 18일 보성 향교 노인대학에서 어른신들 40여명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기동취재본부



나주 금성지구대·나주신협 안전한 나주만들기 업무협약

나주경찰서 금성지구대(대장 김진희)는 18일 '안전한 나주 만들기'를 위해 나주신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동취재본부



순천경찰, '전화금융사기 근절' 출근길 합동캠페인 실시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운)는 지난 20일 순천 조례사거리(에코그라운드 호텔 앞)에서 순천농협 등 70명이 참석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길거리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소방 중마119안전센터,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센터장 정용선)는 불철 대형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관내 공사 현장 '화재예방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양=심종섭기자



광주 남부소방, 봄철 산악사고 대비 구조훈련·안전 캠페인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봄철 산악사고를 대비해 본격적, 제석산 일대에서 산악사고 구조훈련 및 안전 캠페인을 19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